

밥줄 권 알고리즘, '근로자 접근권' 보장을

에스프레소



이 동 수

청년정치쿠루 대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적이 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여행지나 문화를 소개하는 채널이었다. 열심히 해서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채널에 주는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자고 다짐했다. 쉬었다가 재개할지 반복했지만 나름 꾸준히 운영했다. 그만큼 구독자도 차곡차곡 쌓아갔다.

한번은 막 공개한 쇼츠 영상에서 자막 오류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즉각 영상을 삭제하고 틀린 부분을 손본 뒤 다시 게시했다. 이후에도 섬네일(미리보기 화면) 설정을 잘못해서, 영상 노출이 좀처럼 되지 않아서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올렸다. 그때만 해도 몰랐다. 그게 스스로 내 채널 무덤 파는 것이었음을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내가 올린 영상들은 단 1회도 노출되지 않았다. 해법을 찾던 중 유튜브 쇼츠 담당자 토드 서먼의 인터뷰를 보게 됐다.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게시하면 알고리즘은 그 채널을 '스팸 계정'으로 간주한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채널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알고리즘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다. 알고리즘이 내 채널을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영상 노출이 결정됐다. 조회 수는 거기에 비례했다. 알고리즘

의 간섭을 받지 못하면 성공도 없었다. 이용자들이 섬네일을 보고 클릭하는 비율을 높이려고, 한번 클릭한 시청자는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려고 머리를 싸맸다. 이 모든 것이 영상 노출 빈도에, 나아가 채널의 흥행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혹여라도 알고리즘 눈밖에 나는 일을 하진 않을까 늘 노심조사했다. 어느덧 직장 상사, 아니 사장님 모시듯 '알고리즘의 의중'을 받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막 뒤에 숨은 보스 알고리즘 EU 의회, 투명성·접근성 강화 편향은 물론 방법에도 취약적라 사회적 감시 방안 논의해야

그동안 알고리즘에 관해선 확증 편향 문제가 주로 거론되곤 했다. 알고리즘이 개인 맞춤형 환경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더욱 편협한 세상 속에 가둔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전전공공해 본 뒤론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의 발이도 취약적라하는 존재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알고리즘은 취업 규칙과 다름없다. 잘 지키는 만큼 관측은 일감이 들어온다. 배달 기사들은 배달 앱이 정해주는 '추천 배달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더라도 이를 지키려고 신

호 위반과 과속을 불사한다고 한다. 시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다음번 배차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은 장막 뒤에 숨은 보스다. 수많은 이의 밥줄을 움켜쥐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은근슬쩍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쿠팡이 알고리즘과 제품 후기를 조작해 PB(자체 브랜드) 상품에 특별혜 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400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며칠 뒤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AI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4월 플랫폼 중사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도입하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알고리즘에 대한 근로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소한 일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도는 당사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알고리즘 개선 작업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비단 근로자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시대. 역으로 우리는 그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리즘이라는 보스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준의 맛과 성 [199]

무안 홀통 해파리물회

장마철이 지나면 어김없이 삼복더위가 기다린다. 이젠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지만 정작 비 그치니 시원한 비라도 한줄기 내렸으면 한다. 이게 인간이다. 이럴 때 더위를 확 날릴 음식이 물회다. 물회라고 하면 포항 물회를 떠올린다. 물회로 이용하는 어류는 오징어, 한치, 자리돔, 전복, 해삼, 멍게, 도다리, 소라 등 다양하다. 물회는 해산물을 잘게 썰어 파,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와 매실, 식초, 고추장 등을 넣어 얼음이나 찬물을 부어 먹는 시름 매콤한 음식이다. 하지만 해파리라면 어떨까.

해파리는 어민들에게나 여름 피서객에게나 불청객이다. 오죽하면 바다 강패, 해적이라는 별명을 붙였을까. 몇 년 전, 진도 조도면 별치를 잡는 낭랑마을

가득 든 해파리를 만났다. 멸치에 해파리에 묻혀 품질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무게를 버티지 못한 그물이 터지는 사고도 발생한다. 그런데 수족관 한 칸을 특별로 차지한 해파리가 있다. 바다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나타나는 '기수식용해파리'다. '술뿌리해파리'라고 불리다가 식용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정식 이름을 얻었다. 중국 발해만,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서식하다 6월부터 9월 사이에 전남 무안 탄도만 일대와 인천 강화도 연안에 출현한다. 어민들은 조류를 따라 밀려오는 해파리를 낚자망이나 안강망 그물로 잡거나, 뜰채로 뜨기도 한다. 이 해파리를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한다.

탕탕탕. 무안 홀통 유원지의 한 식당 주방에서 경쾌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잠시 후 화려한 해파리 물회가 상에 올라왔다. 물회에서는 수족관에서 본 해파리를 상상할 수 없다. 식용 가능한 해파리 부위는 다리와 몸통이다. 깨끗하게 씻고 먹기 좋게 썰어서 얼음을 넣어 식감을 높인다. 그리고 무안산 적양파, 쪽파, 파프리카 등을 넣고 매실액을 더한다. 해파리는 특별한 맛을 갖고 있지 않다. 마치 맛은 식감이 좋은 단단한 우무라고 할까. 마무리는 밥이나 국수를 말아 먹는다. 더운 불을 피워 조리하기 귀찮고 입맛도 없는 여름에 딱딱 한 끼를 해결하기 좋은 음식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자식 위한 北 주민들 통일 열망, 짓밟아도 못 꺾는다

리일규 전 주쿠바 북한 참사가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을 열망한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일 가족과 함께 한국에 귀순한 리 전 참사는 "북한이 못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북 간부들 일반 주민이든 '내 자식은 나보다 나은 삶이 돼야 한다. 답은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자녀들까지 북한 체제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다. 리 전 참사뿐이 아니다. 태영호 전 의원을 비롯한 엘리트 탈북자들의 망명 동기가 대부분 자식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못산다'는 건 경제적 빈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생 계속되는 세뇌 통제와 광범위하고 무차별한 인권 탄압까지를 말한다. 리 전 참사는 공개 처형당한 한성렬 의사상 부상을 예로 들었다. 끔찍한 총살 현장을 강제로 봐야 했던 간부들이 며칠간 밥을 못 먹었다고 한다. 북 주민은 노예와 가축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고위 간부들도 언제 기관총 세례를 받을지 모른다. 이런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은 건 인간의 본능이다. 악몽을 끝낼 방법은 탈북 또는 통일뿐이다.

대법원이 '李 재판' 신속 진행 의지 보여야 일선 법원도 바뀔 것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수원지법에 배당된 자신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며 낸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신청 14일 만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은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과 한데 묶여 1년 4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다. 여기에 대북 송금 사건까지 합치면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기늠이조차 어렵다. 대법원이 병합 신청을 비교적 신속하게 기각한 데는 심각한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대선 때 거 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은 이르러 오는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은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두 사건은 각각 기소 2년, 1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심각한 재판 지연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 얼마 전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은 1심이 언제 끝날지조차 알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오랜 기간 북 주민들은 북한 밖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북 정권이 극도의 감시·통제·억압으로 귀와 입을 막았다. '한국'이란 나라가 '남조선'인 것도 몰랐다. 이젠 다르다. 접경지대에서만 은밀히 유통되던 외부 소식이 휴대전화와 장마당을 통해 북 전역에 퍼진다. 한류 콘텐츠가 휩쓸며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생겨났다. 북한이 한국 문화를 불법화하고 '척추를 꺾어 죽인다'며 극단적 처벌법을 연달아 만든 이유다. 하지만 리 전 참사는 "아무리 강한 통제와 처벌에도 한류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한류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통일 불'을 선언한 것이다. 리 전 참사도 "주민들의 통일 갈망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북은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지뢰를 깔고 있다. 휴전선 일대엔 장벽을 만들고 압록강, 두만강엔 전기 철조망을 두른다. 평양 역 이름에서 '통일'을 지우고 국가 가사에서 '삼천리'를 없앴다. 그러나 견고하던 베를린 장벽도 결국 무너졌다. 김정은의 어떤 탄압도 주민들의 마음속 통일 소망까지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심각한 사회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판이 4~5년 넘게 걸린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내리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재판 진행 속도를 당기려는 움직임도 별로 없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재판 지연을 위해 작년 말 법관 기피 신청을 냈을 때 하급심은 비교적 빨리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만 31일을 끌었다. 이 때문에 재판이 77일간 중단됐다. 사실상 재판 지연을 방치한 것이다.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은 작년 9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선무효형인데 판결이 늦어지면서 4년의 원 임기틀 다 채웠다. 대법원이 이례선 일선 법원도 바뀌지 않는다.

여야 전당대회, 한쪽은 자해·폭력, 다른 쪽은 '무조건 탄핵'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욕설과 आयु를 퍼붓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몸싸움을 하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한동훈 후보가 연설에 나서자 일부 청중이 "배신자" "꺼져라"라고 외쳤고 한 참석자가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 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당대표 후보들이 연일 원색적인 비난전을 벌이더니 결국 폭력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소수당으로 전락한 집권당이 불쌍사나운 자해와 혐오 정치만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일절 간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과거 당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결국 총선 참패 후 국정을 수습하고 쇄신의 계기로 살아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내분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런 집권당이 의석도 태부족한데 어떻게 민생을 살피고 국정 개혁을 하겠나.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앞다퉈 이재명 대표 표를 침소하하면서 '대통령 탄핵'만 외치고 있다. 당선이 유력하다는 후보는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해 단상에 올랐고, 다른 후

보는 "탄핵 열차 기관사가 되겠다"고 했다. "대통령 부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정 비전에 대한 정권 발표는 없이 한결같이 대통령 탄핵 얘기뿐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대표 우상화도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의 아버지"라더니 "이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이 대표 중심으로 포퓰리즘을 치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외친다. 이재명 사당(私黨)을 넘어 '북한 같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을 앞세웠지만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100일 동안 한 일은 대통령 탄핵과 이 대표 방탄, 입법 폭주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 법사위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국회에서 합의했던 각종 민생 법안과 국민연금 등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시급한 국정 과제는 쌓여 있는데 여당은 연일 분열이고 국회 장악 야당은 탄핵 타령뿐이다.

'배신의 계절'은 다시 오는가

또, 촛불! 통일전선 재시동 ... 비좌파 일부, 또 가담? [제2의 유승민] 나오나?

- 박근혜 탄핵 통일전선엔 누가 들러붙었나
- 유승민 이준석 등 새누리당 의원 62명
- 비좌파라면서도 부화뇌동한 일부 언론
- 배신으로 재미 좀 봤는가?
- 다시 엉덩이 들썩?

■ 역사는 반복되는가

7월 13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이른바 <촛불 행동>이란 좌익 집회가 열렸다. 또 시작이다.



▲오래전부터 가동을 시작한 촛불 정변세력들의 거리집회 모습

늘 있어 온 집회이기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를 물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극좌 혁명 공수에 대한 비(非) 좌파의 인식과 대응이 너무나 한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 한심한 것들

[한심한 것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 ① 좌파가 아니면서도 이에 가담하는 부류.
- ② 아들로 인해 비(非) 좌파가 [선명 투쟁] 세력과 [기회주의

중간파로 분열하는 것. ③ 그리고 상당수 국민은 이런 일에 아예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3가지가 나라를 망치는 장본이다.

■ 요즘 세상에도 통일전선은 더 교묘하게

좌익 혁명군들은 그래서 혁명 초기 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비(非) 좌파세력을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씩 하나씩 제치는 수법을 쓴다. [통일전선] 전술이다.

예컨대 "로마노프 제정(帝政) 하나를 고립시키기 위해 나머지 모든 정파가 손잡자"는 식이다. 공산당은 이때 [공산주의 혁명]이란 말을 대놓고 떠들지 않는다. 그저 저 사악한 제정(帝政)을 물리쳐 인민을 압제에서 해방하자고만 [열]을 끈다.

제정이 타도된 다음엔 [부르주아 타도]라고 한 걸음 나간다. [노동자 반동(反動) 병사(兵) 소(小) 부르주아]가 슬깃할 테니까. [반전(反戰) 평화]하자고도 외친다. 전쟁 좋아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엔 공산당 하나만 남을 때까지 다른 세력을 하나하나 모조리 없애간다. 같은 혁명 세력일지라도 끝수 공산당 아닌 계열은 잔인하게 죽인다.

■ 보수정권 때려 었는 촛불

오늘의 한국에선 어떤가? 소위 [촛불 집회]라는 것을 열 어 보수 정권들을, 들어서는 폭죽 거짓선동과 가짜 뉴스로 때려 었는다.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의 지명력이 왕창 무너진다. 이렇다간 윤석열 정권이 [마지막 우파 정권]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보수 정권들은 왜 그토록 허무하게 매번 무너졌고 또 무너질 판인가? 이게 중요하다. 도대체 뭐가 어찌 되었기에 그렇게들 후닥닥 자빠졌나?

■ 좌익 아니면서 좌파 편에 붙는 정치인-언론

혁명은 극좌 세력 혼자선 할 수 없다. 혁명이 한 걸음 한 걸음 성공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비(非) 좌파 일부가 이런 저런 이유에서 혁명에 가담하는 자멸적 사태가 잇따라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는 [박근혜당 의원 62명]과 [비(非) 좌파 언론]들이 탄핵에 가담했다. 그래서 고립무원의 보수 정권이 무너졌다.

이들은 왜 좌익도 아니면서 좌익 혁명에 가담하는가? 이

들은 좌익이 시대적 대세라 보고 그 파도에 올라타려는 기회주의자들이다.

■ 박근혜 이어 연속 당할 순 없다

자유인들은, 지난 100년의 근현대사에서 수구 왕정(王政)을 자유-민주-공화정(民主共和政)으로 전보시킨 전위(前衛)였다. 그런데 뭐, 이것을 또 다른 수구 [전체주의 독재]로 가져가겠다고?

저들은 올해 말까지 최후의 공세를 시작했다. ★ 해병대원 사망 특검 ★ 판검사 탄핵 ★ 김건희 특검 ★ 국정원 감사원 무력화, 그리고 [윤석열 탄핵]으로. 그렇다면?

자유인들은 일어서자!

★ 이재명 구속 ★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 기회주의의 중간파 극북 ★ 독재의 도구 22대 국회 자폭! ★ 문재인-김정숙-김해경 소추! ★ 선관위 수사!

자유 인파(人波)로 서울 도심을 메우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김형으로 2024년 7월 15일 게재 되었습니다.